

집값 뚝수룩 님비 심화, 청년주택·신혼타운 등 차질

(Not In My Backyard)

비정상 한국경제 '아노말리' 증후군

③ 부동산 님비

정부 임대주택 공급 곳곳서 난항 지역민, 집값 떨어질까 방어 나서 특수학교 등 교육시설도 어려워

부동산 광풍이 꺼지지 않는 가운데, 지역민들의 집값 방어 의지가 강하다. '집사서 돈 버는 시대'에 오히려 가격이 떨어질까 봐 노심초사다. 이에 집값 하락의 우려가 있는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특수학교 등의 진입을 반대하는 '님비(Not In My Backyard, 지역 이기주의)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11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청년·신혼부부 등의 거주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이 곳곳에서 난항을 맞고 있다. 해당 지역민들이 임대주택 진입으로 인한 일대 주택 가치 하락 등의 이유로 반대에 나서면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주거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청년 등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 중 '신혼희망타운'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신혼부부, 예비부부, 한부모 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와 서울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전국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가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지난 4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강서 특수학교 설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맺은 '특수학교 설립 합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특화형 공공주택이다. 기존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하며, 오는 2022년까지 1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주거 취약계층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신혼희망타운이 들어서는 일부 지역에서는 '저렴한 아파트가 들어서면 일대 집값도 떨어질 것'이라며 설립을 반대하고 있다.

신혼희망타운 예정지로 지정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경우 토지소유자들의 반발이 심하다. 성남시는 서현동 일대 24만7631㎡의 부지를 공공주택지구

로 지정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곳에 신혼희망타운 1500가구 등을 포함해 총 3000가구의 공공주택을 짓기로 했다.

그러나 대상 토지의 10%를 보유하고 있는 분당중앙교회를 비롯해 주민들은 학교, 도로 등 기반 시설 부족, 재산가치 하락 등을 이유로 들며 반대에 나섰다. 분당중앙교회에서는 성남시에 신도 2555명의 서명을 담아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 제출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같은 이유에서 청년주택 설립도 난항

〈신혼부부, 청년 특화 임대주택 내용〉

구분	신혼희망타운	역세권 2030 청년주택
대상	결혼후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소득기준 등 일정요건 충족한 가구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20~30대 청년층 중 일정 요건 충족자
가격	주변시세보다 20~30% 저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
공급	10만호 2022년까지 4.5만호, 이후 5.5만호	2만2560가구(55곳) 2022년까지 8만가구
공급지	서울 양원, 의정부 고산 등 60곳 5만8527가구	강변역, 신림역, 충정로역 등 지하철역 인근

을 겪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청년을 위해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을 발표하고 현재 총 55곳, 2만2560가구 공급을 추진 중이다. 오는 2022년까지는 총 8만실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도심에 공급한다는 게 갈등의 소지가 됐다. 역세권 도심 지역에 임대주택이 들어서면 낙후지역으로 인식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게 입주주민들의 입장이다.

'2030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사업 부지로 선정된 강동구, 영등포구 인근 주민들은 집값 하락, 슬럼화 우려 등의 이유로 주택 설립을 반대해 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역민들이 청년임대주택을 '5평짜리 빈민 아파트'로 표현하는 등 혐오시설 취급해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

도 했다.

임대주택 외에도 꼭 필요한 교육시설인 특수학교 설립도 쉽지 않다.

서울 강서구는 집값 하락을 이유로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해 왔다. 이에 장애 학생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는 등 1년간 우여곡절을 겪은 뒤에야 내년 하반기 특수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진미운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반 아파트는 가점제 위주라 어린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이 청약 경쟁에서 밀린다. 임대 아파트 공급이 확대되면 아들에게도 입주의 기회가 생기는 것"이라며 "다만 특정 지역에서 나타나는 님비현상이 우려되는데, 이는 지방 정부에서 나서서 임대주택 공급 등으로 인한 지역의 혜택을 설명하고 민원을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보급형 모델에 역대 최대 화면까지 차세대 아이폰 3종 동시 개봉

아이폰XC·XS·XS맥스
국내선 10월 말 출시 예상



유출된 아이폰 엔트리 모델 외관 사진. /더 버지 홈페이지

애플이 12일(현지시간) 미국에 있는 본사 안 스티브 잡스 극장에서 신제품공개 행사를 열 예정인 가운데 업계에서는 특별 이벤트를 예고한 초정장 낱짜에 차세대 아이폰3종이 공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차세대 아이폰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게 될지 사용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외신등을 통해 나온 정보에 따르면 새 아이폰의 디자인은 아이폰 텐(X)과 비슷하면서 디스플레이가 커진다. 모델명은 각각 ▲아이폰XC ▲아이폰XS ▲아이폰XS맥스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아이폰XC는 보급형 모델이다. 6.1인치 액정(LCD) 디스플레이를 가졌고 하나의 후면 카메라를 탑재했다. 프레임에 스테인레스 스틸 대신 알루미늄을 썼으며 컬러는 레드, 화이트, 블루로 나온다. 통신사를 쉽게 교환하면서 쓰도록 듀얼 심(SIM) 듀얼 스탠바이 기능이 탑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폰XS는 5.8인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아이폰 X의 직계 후속작이다. 후면에는 듀얼 카메라를 탑재했고 페이스ID(안면인식) 등 생체인식 기능도 지원한다. 아이폰X처럼 화면 베젤과 화면 이음새에 M자를 연상케 하는 노치 디자인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폰XS맥스는 6.5인치로 역대 최대 크기의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최상급 모델이다. 이전에는 플러스 시리즈였지만 이번에는 플러스란 네이밍을 버릴 것이라 추측이다. 아이폰XS가 가진 모든 기능과 성능에 더해 대용량 배터리와 512기가바이트(GB) 저장용량을 제공

한다. 애플은 아이폰XS맥스를 삼성 갤럭시 노트 시리즈에 대응하는 모델로 잡았다는 예측도 있다. 최근 애플이 대만의 스타일러스 펜 생산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보도가 있다. 또한 아이폰패드 프로에 쓰인 애플펜슬을 지원할 수도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성능이나 기능에서는 유출된 스펙을 중심으로 비교적 의견이 일치되고 있지만 가격에 대해서는 기관마다 의견이 조금씩 엇갈리고 있다. 미국 메릴린치 투자은행 보고서는 세 아이폰의 예상 출고가를 각각 799달러(약 90만원), 999달러(약 112만원), 1049달러(약 118만원)로 잡았다. 애플 전문매체 나인투파이브맥은 아이폰 XC의 가격을 699달러로 추정하지만 블룸버그는 699달러란 가격책정 가능성이 적고 애플 실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언급했다. 골드만 삭스는 849달러를 매길 것으로 예상했다.

애플은 아이폰 3종을 오는 21일 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의 경우 9월 12일 아이폰8과 아이폰X를 공개해 같은 달 22일부터 제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도 한국은 1차 출시국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 유력하다. 따라서 국내에는 10월 말 혹은 11월에 출시될 전망이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유통가 상생경영 확산... 대금 조기지급

GS리테일 700억, 홈플러스 1700억
이마트 1000억 규모 명절 전 지급

추석을 앞두고 유통업체들이 협력업체에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하며 상생을 도모하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GS리테일을 비롯한 유통업체들은 중소 협력업체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납품대금 조기 지급을 확정하거나 준비 중이다.

우선 GS리테일은 오는 30일 지급 예정이던 중소 파트너사 대금을 추석 전인 21일에 지급한다. GS리테일은 GS25, GS수퍼마켓에 물품을 공급하는 중소 협력업체들이 상품 거래 증가로 인한 자금 압박을 겪지 않도록 매년 명절마다 조기 지급을 시행하고 있다.

납품대금 규모는 약 700억 원이다. 김재호 GS리테일 상생협력팀장은 "GS리테일은 명절을 맞아 상품 거래가 증가하는 중소 파트너사들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매년 물품대금 조기 지급을 진행하고 있다"며 "다양한 동반성장 활동을 통해 파트너사와 함께



GS리테일의 2017년 유어스테이 행사.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형마트도 중소 협력업체의 원활한 자금 운영을 돕기 위해 대금 조기 지급에 나섰다.

홈플러스는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 협력사 3400여개 사를 대상으로 총 1700억 원 규모의 대금을 일찌감치 지급한다. 정상지급일보다 평균 7일 앞당겨 추석 연휴 전에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마트도 오는 28일 지급 예정이던 대금을 8일 앞당겨 추석 연휴 전인 20일에 지급한다. 협력업체들이 명절 때 상여금, 임금, 원자재 대금 등 자금 수요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08년부터 중소 협력업체 납품

대금을 100% 현금으로 결제해 오고 있는 이마트는 지난 설에 1400억 원 규모의 대금을 조기 지급한 데 이어, 올 추석에도 312개 업체를 대상으로 1000억 원 규모의 대금을 일찌감치 지급하며 상생에 앞장 서고 있다.

서울우유협동조합도 조기 지급 대열에 합류했다. 600개 협력 업체를 대상으로 300억 원 규모의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결정할 것. 통상 매월 28일에 현금 결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15일 앞당겨 13일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올해 추석연휴가 지난해보다 일주일 가량 앞당겨지면서 대금을 조기 지급하지 않고, 통상 일자에 지급하기로 잠정 결정한 업체도 늘었다. /김민서 기자 min0812@

LS니꼬동제련, 페루기업과 10억 달러 동광석 공급 계약

총 10년간 56만톤 거래

비철금속 기업 LS니꼬동제련이 페루의 광산기업 민수르와 '미나 후스타 동광산 장기구매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계약기간은 총 10년이며 계약 규모는 거래 물량 56만톤에 금액 규모 10억달러(약 1조13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LS니꼬동제련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미나 후스타 광산에서 생산하는 동정광을 매년 5만~6만톤씩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된다.

동정광은 선광 작업을 거쳐 순도가 높아진 동광석을 의미한다.

미나 후스타에서 생산하는 동정광은 순도가 40%로, 순도가 20%대인 일반 동정광의 두 배에 가까워 기존 원료보다 높은 생산효율이 기대된다고 LS측은 설명했다.

LS니꼬동제련은 미나 후스타 광산 인근에 세워지는 습식제련 공장에서 생산하는 전기동 총 15만6000톤(연간 1만5000톤)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

이번 계약에서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은 원활한 계약 체결을 위해 지난달 미나 후스타 프로젝트에 2억달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 금융지원 제공을 결정한 바 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